

이재명, 누계 73.2% 선두로 野 전대 반환점 통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0% 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2주째 선두 독주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처음 발표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이른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공고히 하며 순회 경선의 반환점을 통과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대전·세종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12개 시도 누계 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고

도중환 중앙당 선관위원장이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누계 득표율 19.90%, 강훈식 후보는 6.83%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함께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9.69%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박 후보가 16.96%, 강 후보가 3.35%로 뒤를 이었다.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당장 누계 득표율에 반영되지 않고, 오는 26-27일 진행되는 2차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8·28 전당대회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

박용진 19.9%·강훈식 6.8%... '어대명' 공고해져
최고위원 정청래·고민정·장경태·서영교·박찬대 順
송갑석, 20-21일 전북·광주·전남 경선서 '승부수'

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인함에 따라 남은 2주간의 전당대회 후반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선출' 수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용진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 후보는 충청 지역의 지지세에 기대를 걸었으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오는 20일과 21일로 예정된 전

북과 광주·전남 순회경선에서는 친이낙연계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대거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략적 투표를 구사하는 호남표의 특성상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도 전북 장수 출신의 박용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22%의 누계 득표율 1위를 지켰고, 고민정 후보가 22.11%로 2위를 달렸다.

이어 장경태 후보가 11.48%, 서영교 후보가 11.06%, 박찬대 후보가 10.68%로 3

-5위에 포진했다. 송갑석 후보는 누계득표율 4.15%로 8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하위를 얻지 못 벗어나고 있다. 송 후보는 그러나 오는 20일 전북 경선, 21일 열리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중의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최고위원은 최종 5인을 선출한다. 현재 1-5위권 후보 가운데 정청래·장경태·서영교·박찬대 후보 등 4명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등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계'가 상위권에 포진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이준석 회견' 여진...尹정부 100일 與 내홍 최고조

李, 방송·책 출간 등 여론전 지속
"폭탄 떨어졌다" 갈등 장기화 전망



국회의원 이준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저격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지난 13일 '작심 기자회견' 후 이들이 지났지만, 15일 여권 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한 원 내·외 인사들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로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비대위 체제를 출범,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위 체제 출범을 목전에 두고 오히려 자중지란이 최고조로 치달는 대혼돈이 연출되고 있다.

이 대표는 광복절인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 X'라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악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25점으로 박하게 매겼다.

이 대표는 책 출간, 방송 출연 등을 계속 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분열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런 내분 상황이 지속되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할 비대위 출범과 지지를 받든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할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도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날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를

후 심각한 분열 상태에 이른 독립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데 헌신한 김동삼 선생님을 되뇌게 된다"면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다. 김동삼 선생님의 말씀처럼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를 전 이 대표의 회견을 '내부 분열'로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정치판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몰락해 가는 정권이어서 흔들기 쉬웠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갓 시작한 정권"이라며 "당량거절(螳螂拒輦, 사마귀가 수레바

퀴를 막는다)에 불과하다, 대의(大義, 큰 뜻)를 위해 소리(小利, 작은 이익)를 버리라"고 적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대통령실·정부의 리스크를 견어내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 폭탄'이 떨어졌다"며 "기자회견은 지나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 돼 통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대선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이었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순신의 길을 가겠다' 해서 회색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조선 해군을 수장 시킨 무능한 장수 원군을 윤핵관에 오버래핑(비유)했다"며 "이순신은 원군에게 모함 당하고 관직까지 박탈당했지만 희생을 감내하며 백의종군해 명량대첩

강훈식, 중도사퇴...李-朴 2파전 재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후보직에서 중도사퇴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면서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이재명·박용진)에게 맡기고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반이재명계 연합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반명(反明) 단일화 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의 중도사퇴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화순군 특산자원 공모 선정" 환영

화순군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특산자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5일 "농촌진흥청의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화순군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특산자원인 '복숭아·토마토·블루베리·쌀'을 활용해 지역소비처 연계

반가공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은 기회로 화순군 특화품목에 대한 인지도 상승,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반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릭

권은희·윤재갑 '농산물유통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매시장법인 중심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유통혁신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기획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동환 농식품 신우동연구위원장의 사회로 김윤두 건국대 교수가 '농수산물 유통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권은희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맞춰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유통혁신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 씹살한 맛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